

齒醫學 發展과 言語의 障壁

九 宜 齒 科 醫 院

金 潤 煥

THE DEVELOPEMENT OF DENTISTRY AND THE LANGUAGE BARRIER

Y. H. Kim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내왔었는데 이 모른다는 사실을 發見하고 나의 솔직한 心情을 토론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져 한다.

얼마전 학술지에 最新知見이란 표제의 글을 읽으면서, 좀 과장된 표현을 빌린다면 21세기 空想小說을 읽는 기분이 든 적이 있었다. 내용이 잘 理解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전문용어 자체의 의미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현대과학이 이처럼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것이다. 내가 오랜 기간 책과 멀리 하고 있을 때 현대과학은 발전하였고 나는 퇴보하며 늙어가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도퇴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학자는 현대인이요 젊은이요 서구인이란 나는 舊世代사람이요 늙은이요 한국인이었던 것이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대학을 졸업한 같은 치과의사이면서 이렇게 먼 거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言語의 障壁을 問題視하게 된다.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별로 느껴보지 못했던 일이다. 外國語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대학에서 그 당시에 전문용어는 배우고 졸업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오히려 漢文으로 표기된 것이 영어전문용어보다 概念化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단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說明해 보자. 대학에서 Denture라는 용어를 배웠고 또 잘 概念化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학술지를 읽어 보면 義齒라고 되어 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구태어 漢文을 쓰는 것보다 영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도 생각해 본 때가 있었다. 그러나 임상에서 실제 患者와 대화를 나눌 때는 “틀니”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틀니”라는 말이 환자들에게는 더 잘 理解되고 쉽게 概念化되기 때문에 계속 “틀니”와 같은 우리 말 용어의 사용빈도와 數도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전문지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영

어나 漢文의 전문용어는 실용성이 없어지고 자연히 결과적으로 망각의 세계로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어쩌다가 다시 전문지를 들춰 보려면 옛날 제시해보던 생각부터 연상되어 자연히 학술지와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소견으로 해결책의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1. 전문용어의 짚이

우리는 한 가지 意味를 갖은 세계의 단어를 알아야 한다. 미국대학생이 알고 있는 영어 어휘의 數는 약 20만 단어라고 하니 우리가 전문서적을 보려면 과연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어야 할까? 이러한 문제해결은 전문용어의 통일이며 통일된 용어는 우리 말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치의학 전문도서에서 전문용어는 우리말로 풀이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 사람의 독자가 사전을 찾아야 될 용어라면 저자로서 힘이 들더라도 독자를 위하여 용어 풀이를 하여줌이 좋을 것이다. 특히 새로 소개되는 전문용어라면 영어, 한문, 한글, 이 세 가지를 같이 기록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2. 우리말 사용의 확대와 造語(말을 새로 만들어냄)

感情의 意思 전달은 모국어이어야만 쉽게 전달된다. “필자” “백서” “사려된다”라는 말을 “나” “원췌” “생각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概念化하기 쉽고 정신력의 소모가 적다.

실예를 하나 들어보자. Scaling이나 齒石除去라는 용어보다는 “입안 청소”라는 말이 概念化하기 쉽다. 사전을 찾아보면 Scale은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이 있다.

따라서 英美人은 Scaling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도 어느 정도 意味를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齒石除去라는 말은 文章에서 한문으로 쓴 글을 읽으면서는 쉽게 이해될 수 있을지 몰라도 口語體로써는 意思 전달이 어려울 것이며 齒石만 제거한다는 한정된 意味가 있다. 清掃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 보니 “깨끗이 掃除함”

이라고 되어 있고 “掃除”를 다시 찾아 보니 “떨고 쓸고 닦아 깨끗하게 함”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입 안 청소”하면 암시적으로 균의 제거가 될 수 있다는 意思 전달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므로 患者와 意思 전달이 쉬우며 또 친근감을 갖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려운 전문 술어를 쓰는 것은 지식 수준이 낮은 患者와의 대화를 막고 또 어떤 용어는 적당한 우리 말이 없어서 그림을 그린다던가 손짓 발짓을 해 가며 意思 전달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용어를 찾아 내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된다. 어느 나라 말이든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文化가 발달될수록 많은 어휘가 만들어져 왔던 것이다. 영어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 영어에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전문 용어들도 대부분 科學어로써 만들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造語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치 대학가에서 은어가 생겨서 여러 대학생들 간에 쉽게 공감되면서 빠르게 전달되어 가는 것과 같다. 옛 친구의 이름은 있어 버렸지만 共感되는 별명은 오래 기억하고 있는 수가 있다.

우리말로써 共感되는 전문용어를 造語해 간다면 발전된 현대치의학이 임상치과의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임상에서 患者를 통하여 빠르게 국민구강보건과 직결될 것이다.

외국에서 새로운 科學용어가 생겨나는 속도보다도 우리말의 造語의 속도가 빠르면 우리의 주체성을 찾을 것이며 늦으면 서구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학자와 임상가의 유대 강화

여기에서 학자라 함은 치의학연구에 전념하시는 분을 말한다. 주로 대학에서 교직생활을 하시는 분을 가르키게 되는데 이분들과 임상가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또 현대치의학을 보급하기 위하여는 언어의 장벽을 뚫어야 된다는 宿題를 갖게 된다. 나의 경우 현재 치대에 계신 분 중에는 은사가 아니시면서 先輩인 분도 계시고 동기생이나 後輩도 있다. 이 분들과는 앞으로 선후배나 동기생의 관계가 아니고 학문적으로는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새로운 유대를 만들며 또 강화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본다. 학자들은 전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論述수법하시며 임상가들은 그를 받아 들어서 다시 患者와의 대화 속에 활용함으로써 현대치의학을 보급시키며 치과의는 患者의 지도자적 입장을 유지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로 학자들의 노고에 임상가들은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보답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4. 여가의 선용과 보수교육

임상가들은 나의 경우를 들어 생각할 때, 치료실내에서의 여가는 충분이 있지만 치료실 밖에서의 시간은 얻기가 힘들다. 물론 정신적 여유는 시간적 여유만큼 얻기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학술적 논문이라도 서술 자체가 쉽게 되어 있다면 학술지와도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는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학술지도 가벼운 독서를 하는 것과 같이 취미로 읽을 수 있도록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지답지 않은 잡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이느 집담회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으므로 연사는 떠돌고 나는 병어리가 되어버렸던 경험이 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서 의사 전달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언어장벽이 뚫리면 보수교육도 가능하며 임상가의 치료실 내의 시간을 활용하여 서적을 통하여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5. 전문서적의 보급

현재 임상의로써 전문 서적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고 理解가 어려우니 자연 멀리 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한 상태라면 현재 3千명의 치과의를 대상으로 문헌보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각자 필요하고도 이해하기 쉬운 문헌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꾸준히 노력되어 후세 우리 후손들은 우리 말로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같이 기다려 본다.

이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학술적 지식을 얻는 것은 물론이지만 젊어지고 선후배간의 간격을 좁히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서울시 인정 제44호



세창치과기공소

권 력 문

서울시용산구도동1가19-18(금정빌딩302)

전화 (22) 5970